

‘현우경’ 이야기 (47)

루타와 아루타 형제

아루타 등에 업힌 토끼는 황금으로...

바라나시에 큰 상인이 있었다. 그는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어느날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 그에게는 루타와 아루타라는 두 형제가 있었다. 두 형제를 남겨두고 죽어가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

“너희 형제는 서로 위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 부디 따로 살지 말라. 서로 의지하고 믿으면 남들이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안으로 화목하여 살림에 힘쓰면 재산이 날로 늘어갈 것이다”

형 루타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동생 내외와 함께 살기로 결심을 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나자 동생의 마음은 달라졌다. 아내는 형님네와 사는 것이 그다지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 아루타를 설득했다.

“형님네와 같이 사니 손이나 친척이 와도 마음대로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엇 하나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각각 갈라서 산다면 훨씬 더 좋을 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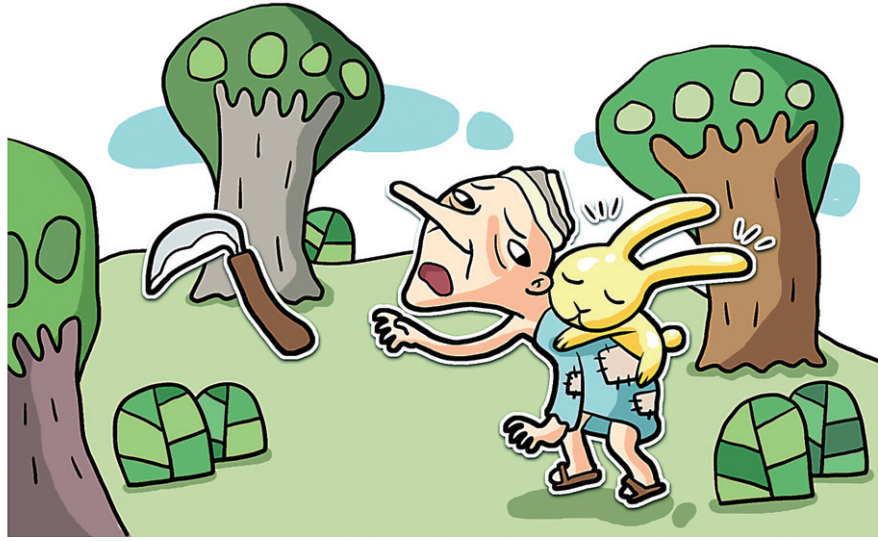
형 루타는 완고히 반대를 했지만 결국 살림을 따로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아루타는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여 가난뱅이가 되었다.

결국 기릴 곳이 없자 다시 형을 찾았다. 형은 동생을 불쌍히 여겨 십만 냥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장사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이것이 쉽지 않았고 손에 쥐고 있던 10만 냥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다시 형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는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집을 나가더니 또 이렇게 돈을 빌리러 왔느냐?”

“이번 한번만 봐준다면 다시는 손을 빌리지 않겠습니다”

동생을 불쌍히 여긴 형은 마지막이라며 60만 냥을 빌려 주었다. 동생 부부는 형의 충고를 기을 삼아 열심히 살았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재산을 불려 나갔다. 하지만 형의 사정은 달랐다. 큰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장사마다 망해버렸다. 형은 결국



삼화·강병호

동생을 찾아가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아내 거절당했다.

“형님은 가난을 모를 줄 알았는데 어째서 내게 와 돈을 구합니까? 저에게는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형은 이렇게 말하는 동생이 너무 괴팍했다. 믿었던 동생이 이렇게 나오자 세상만사

가 모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바리고 산으로 들어가 수행정진해 프라데카 부처님이 되었다. 그렇게 부처님이 된 루타는 성에 들어가 걸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동네에 기근이 들었고 모두가 아사 직전에 다달았다.

프라데카 부처님 역시 더 이상 걸식을 하

기 힘들어졌다. 여기저기 떠돌았지만 바루에는 누구하나 음식을 담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날 프라데카 부처는 동생 아루타와 마주치게 된다. 그의 가슴에는 죽 한 그릇이 안겨져 있었다. 아루타는 형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공손히 무릎을 꿇고 예를 표했다. 그리고는 아루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죽을 발우에 붓는 것이 아닌가? 프라데카 부처님은 물었다.

“이 기근에 여찌 나에게 귀한 것을 보시하는 것이요?”

“저에게는 형님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큰 죄를 지었는데 어느날 참회를 하고 보니 형님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형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프라데카 부처는 그 고마움에 이렇게 발원했다. “일체 중생들은 여러 가지로 재물을 구합니다. 세상마다 재물이 모자람이 없이 무엇이냐 가지고 싶으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번뇌가 다하고 신통변화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한달 여 시간이 지나갔다. 동생

아루타는 나무를 허러 산에 갔다가 토끼를 보게 됐다. 가지고 있던 냥을 토끼에게 던지자 토끼가 등에 올라타고 만다. 그리고는 떨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토끼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토끼가 아루타의 목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 토끼는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이 소문은 차츰 퍼져, 왕까지 알게 되었다. 왕은 직접 찾아가 확인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죽은 토끼가 아닌가?

“너는 지금 이것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것은 진실로 금이라고 봅니다”

아루타는 목에 달린 것의 일부를 떼어 왕에게 바치니 찬란한 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인연으로 이것을 얻었는가?”

“이것은 분명히 프라데카 부처에게 죽을 보시한 까닭으로 생긴 기적일 것입니다”

“너는 훌륭한 공덕을 쌓아 그런 뛰어난 분을 만난 것이다. 너에게 베풀을 주어 대신으로 삼을 것이다”

구성=정혜숙기자 bwjhs@hyunbul.com



since 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p>반야동자 (12절) 3,000부 이상 @ 800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부 이상 @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p>보리심 (한지) 200부 이상 @ 1,500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p>행복한하루 (탁상) 200부 이상 @ 1,500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p>선(수첩) 200부 이상 @ 650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부 @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 : 18장 	<p>연꽃향기 (미니) 200부 이상 @ 450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부 @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
--	---	--	---	---